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조선소·기자재 기업 상생발전 도모



해남군청. /해남군

해남군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해남군은 오는 8월 8~9일 2024년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한다.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는 1994년 해운대구와 자매결연을 계기로 2000년부터 매년 해남군과 해운대구에서 번갈아 열고 있다.

올해 캠프는 해남군 주관으로 8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해남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이 참가할 수 있으며, 명량해상케이블카와 공룡박물관, 모노레일 탑승, 땅굴전망대 등지에서 영호남 청소년들의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기장군 찾아가는 재능나눔콘서트

기장군은 '2024년 찾아가는 재능나눔콘서트'가 오는 20일 일광해수욕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재능나눔콘서트는 평생학습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교육 수강생과 재능나눔 봉사단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행사다.

올해는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되며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일광해수욕장에서 첫 공연이 열린다.

행사에는 통기타, 무용, 난타 등 5개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재능나눔 공연이 펼쳐지며 미술, 댄스 등의 초청공연으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중소기술정보진흥원 영남 중소기업 대상 투자자금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영남권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7일 TIPA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 중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TIPA는 오는 8월 2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하고 요건 검토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 R&D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추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조선산업 현안논의 간담회 BNK부산은행, 지역기업 위해 3000억 금융지원 상품 출시

부산시와 조선업계, 금융계가 모여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부산진구 롯데호텔 부산에서 '조선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형 조선사, 조선기자재 기업, 지역 상공계 대표와 부산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종서 한화오션 사장,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방성빈 BN



부산시는 지난 16일 부산진구 롯데호텔 부산에서 '조선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K부산은행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 대표들은 중대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기업이 상생 협력을 이뤄 조선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다.

박 시장은 참석 대표들에게 지역 조선산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소개하면서, 조선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대형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기업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이 소개한 시책으로는 ▲조선기자재 공동납품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개최 지원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R&D)플랫폼 구축사업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있다.

방성빈BNK부산은행장은지역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상품을 출시해 지역 조선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지역 금융기업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선기자재 기업을 대표해 중대형 조선소 대표들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조선기자재 기업 부설연구소의 집적화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선박 연구개발(R&D)클러스터 센터' 건립 후분양시 중대형 조선소의 적극적인 입주 검토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Offshore Korea 2024) 개최에 따른 중대형 조선소의 부스 참가 적극 검토 ▲조선기자재 공동납품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조선소의 구축 플랫폼 사용, 납기정보 공유 등 공동납품 지원 활성화 등 총 3건이다.

박형준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조선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중대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기업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대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기업이 상생 협력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울산 스마트도시' 추진율 50% 돌파 포스코포항제철소, 여름나기 지원활동

2026년까지 7대 분야 36개 사업 예산 1593억 확보... 총 사업비 54%

울산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 지능형(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울산 스마트도시계획'이 순항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 일상 구현과 효율적인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울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에 나섰다.

'울산 스마트도시계획'은 '시민 체감형 미래도시, 스마트 울산' 구현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교통, 환경, 안전, 산업 등 7대 분야 36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50.7%의 추진율을 기록

했다. 또 사업부서에서 확보한 예산도 총 사업비의 54%인 1593억원으로 파악돼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별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능형 드론 안심지킴이 ▲화학공단 주변 실시간 관측 ▲지능형 도시 데이터 허브 ▲디지털 집현전(다모아울산) 등 7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 운영 중이다.

또 ▲지능형 주차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능형 교통안전 ▲지능형 버스정류장 ▲데이터 기반 에너지 통합관리 ▲인공지능(AI) 기반 독거노인 돌봄비 ▲지능형 관광 ▲지능형 공원 ▲지능형 친환경 산단 통합관제센터 등 21개 사업은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 정상 추진 중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점심특식, 격려간식 등 제공

포스코포항제철소(소장 천시열)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의 '여름나기' 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철소 작업 특성상 옥외 수리현장과 고온 개소가 많아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활동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맞아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복삼계탕, 물회 등 다양한 보양 점심특식을 구내식당에서 제공했다.

또한 휴서기 기간 동안 제철소장은 팔빙수와 토스트 등 격려 간식을 모든 직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작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푸드트럭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15일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포항제철소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보양 점심특식을 직원들이 배식 받고 있다.

부터 '찾아가는 안전버스'가 '무더위 쉼터'로 탈바꿈하여 옥외 및 고열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작업자 휴게시간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더위에 지친 근로자들은 안전버스 안에서 시원한 물과 식염포도당 등 충분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포항(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여자 야구대회, 울진 경제 활성화 기여

전국서 1000여명 방문

경북 울진군에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2024 전국 여자 야구대회'가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회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방문해 울진 죽변면 일대의 음식, 관광, 숙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울진군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행정지원과 함께 잘 갖춰진 체육시설 인프라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해 울진을 방문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슌,울진'에서 개최된 2024 전국 여자 야구대회에는 전국에서 37개팀, 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총 37경기를 치렀다.

/울진(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경북도, 대구시에 통합법률안 제안

통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 담야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대구시에 제안해 현재 시도 통합추진단이 공동안을 마련하고자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제안한 통합법률안은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

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 등을 담고 있다.

도가 제시한 '미래 대한민국 통합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에는 과학 기술 및 미래 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통합 균형 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김상복 기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실리콘밸리 거물들, 당선 가능성 큰 트럼프에 기부
▲이란 정부, '트럼프 암살 기도' 부인 /사진 뉴시스

▲트럼프 피격에 바이든 "총기 규제 강화해야"
▲방콕 호텔에서 외국인 6명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



▲이스라엘, 가자 '인도주의 구역' 공습... 최소 60명 사망
▲美, CIA 출신 대북전문가 '한국 정부 대리 혐의' 기소 /사진 뉴시스